첫 비구니 법계위원에 본각·계호·광용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화재로 회기 앞당겨 폐회

화재 후 조계사 교육관서 속개
원로의원에 장윤 스님 추천해
격론 끝 동화사조사특위 구성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6월 10일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제234회 임시회를 하루 만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로 제233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또다시 화마에 발목을 잡혔다.

중앙종회는 10일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안건 채택을 논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 대피하고 정회했다. 이어 화재 진압 후인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에 마련된 임시 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속개했다.

종회의원 55명이 참석해 속개한 임시회는 오전에 중단된 '안건 채택의 건'을 확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키로 했다.

신임 원로의원에는 장윤 스님(전등사 회주)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장윤 스님은 상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동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재적본사는 동화사다. 지난해 4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제8·9대 및 11~15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정국장, 은적사·대전사·전등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법인사무처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를 역임했다.

'종법 개정의 건'은 수정안이 발의된 '사찰법' 개정안과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나머지 안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키로 했다. 이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는 이월하고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는 종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사진 왼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조계사 불교대학에 마련된 임시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진행했다.

비구니 법계위원에는 본각·계호·광용 스님을 만장일치로 위촉 동의했다. 법계위원에 비구니 스님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종회에서 법계위원을 비구 9인에 비구니 3인을 포함해 총 12인으로 하도록 '법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격론 끝에 만장일치 통과했다. 대표 발의자 설암 스님은 "동화사에서 말사 주지와 신도들에게 금품과 총림 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해종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호법부에 진정서와 투서도 접수된 만큼 조속히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스님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성로 스님은 호법부장 도심 스님에게 "호법부에 진정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도심 스님은 "현재 동화사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고, 종단 자문변호사 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해 조사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암 스님은 "동화사는 총림실사, 종단 감사,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회가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적 감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반양론이 맞서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찬성과 반대 각 3명씩의 의견을 듣고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화 스님은 "총무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른 안건은 모두 이월하면서 동화사 특위 구성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사로서는 존폐의 문제가 달린 엄청난 사안이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종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가자 10분간 정회했고, 특위 구성에 반대 의견을 표했던 스님들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30여 분 가까이 속개하지 못했다.

임시회는 4시경 41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해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위원장은 대표발의자 설암 스님이 맡고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후 종회는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동화사 '총림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서울중앙지법, 6월 11일 판결
"총림해제 사법심사 대상 아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제기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1일 동화사가 지난 4월 8일 제기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법원은 "총림 지정 해제에 관한 결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총림 지위 해제에 따라 동화사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동화사를 총림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회계 관리와 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돼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의 결정 후 동화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동화사는 4월 3일 '팔공총림 임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의결은 종헌종법을 위배한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종회는 4월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동화사의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4일에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6월 10일 열린 제234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으나, 종회는 정회와 속개 끝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에 대해 동화사는 11일 "특위 구성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이후 본안 소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신흥사-흥천사, 3년 묵은 갈등 해결 '합의'

합의서 서명으로 갈등 봉합
진우 스님 "화합으로 발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서울 흥천사가 3년 가까이 이어온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금곡 스님(흥천사 회주)과 삼조 스님(신흥사)은 6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그간의 갈등으로 종단에 누를 끼친 점을 참회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합과 배려를 통해 신흥사와 흥천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의 중재하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금곡 스님과 삼조 스님은 지난 5월 말 종단 및 신흥사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합의하고, 수행정진과 전법교화에 진력할 것을 확인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양측이 그간 사법기관에 제기했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종단 호법부에 제기했던 진정 사건을 취하하고, 언론을 통한 일체의 비방과 비난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신흥사와 흥천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 원적

6월 9일 세수 70세, 법랍 59세



태고종 순천 선암사 원로의원이자 광주전남종무원장인 관응당 월인 스님〈사진〉이 6월 9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70세, 법랍 59세.

월인 스님은 1967년 지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선암사와 광주 문빈정사 등지에서 수행 정진하며 출가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광주 광덕사 주지를 역임한 뒤, 1996년에는 광주 법륜사를 창건해 주석하며 포교에 헌신해 왔다.

스님은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일응 스님으로부터 범음법패 및 작법을 전수받고, 광주영산작법보존회를 창립해 지역 전통 불교의식의 전승과 활성화에 앞장섰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작법 분야 기능보유자로 등재됐다.

특히 스님은 매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영령을 위한 추모제와 다수의 불교 의식에 직접 참여해 불교의례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2018년에는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으로 취임해 종단 행정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